

우리말 어휘의 시간을 읽다

고림보

오늘의 뜻에서 옛 문헌까지

고림보 라는 단어의 역사

우리가 쓰고 있는 단어

완성된 이름

고림보

출처: 국립국어원 우리말어휘역사사전

고림보

한눈에 보는 기록

뜻

몸이 약하여 늘 골골거리며 앓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요약 연대표

표기	20세기	현재
고림보		

history.wordrow.kr wordrow

오늘의 뜻

몸이 약하여 늘 골골거리며 앓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 문헌의 첫 기록

20세기

📖 수록 용례

6개

📄 수록 내용

뜻 · 표기 · 문헌

사전의 뜻풀이, 옛 표기와 문헌 용례를 함께 읽는 자료입니다.
모든 뜻과 세기의 기록을 수록했습니다.
문헌 속 한자 2자의 뜻·음과 숫자 획순을 부록에 담았습니다.



우리가 알고있는 '고림보'의 뜻

국어사전 뜻풀이

사전에 수록된 오늘날의 뜻입니다. 아래 문헌의 뜻 구분은 원자료를 따르며, 오늘날의 뜻과 다를 수 있습니다.

몸이 약하여 늘 골골거리며 앓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고림보의 표기 연대표

표기의 변화와 공존

고림보의 표기를 세기별로 모았습니다. 같은 세기에 여러 표기가 함께 쓰이기도 했습니다. 연대표는 모든 문헌 뜻의 기록을 모으며, 연결된 용례는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을 기준으로 읽습니다.

표기 · 근거	15세기	16세기	17세기	18세기	19세기	20세기
고림보 사전 표기 요약	—	—	—	—	—	● →

연대표의 근거와 읽는 법

- **사전 표기 요약**: 사전의 표기 변화 요약입니다.
- **문헌 수록 표기**: 세기별 문헌에 함께 실린 표기를 더한 것입니다.
- 점이 없는 시기에도 이 말이 쓰였을 수 있습니다. 표시된 세기는 자료에 기록이 남은 시기로, 낱말이 생기거나 사라진 때와는 구분됩니다.
- 점은 문헌 영역에 표시된 뜻의 해당 세기 용례로 연결됩니다.

시대별 주요 표기 모아보기 1종

사전의 표기 요약과 문헌 수록 표기를 모았습니다. ‘현재’는 오늘의 표제어이며 역사 세기와 구분합니다.

- 고림보
20세기현재

원자료의 전체 표기 목록 1종

고림보



고림보의 어원과 변화

이 말은 어떻게 달라졌을까

사전의 어원·변화 설명

📖 옛 표기와 등장 시기

‘고림보’는 20세기부터 나타나 현재까지 이어진다.

🔍 말의 구성과 어원

‘고림보’는 ‘고림’과 그것을 특성으로 지닌 사람을 뜻하는 접미사 ‘-보’가 결합한 것으로, ‘고림’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없다.

📖 뜻과 쓰임

‘고림’은 같은 뜻을 지닌 ‘고림장이’에서도 확인된다.

📖 문헌 속의 고림보

전체 용례 6개

모든 뜻과 세기의 문헌 용례입니다. 원문, 현대어 풀이와 출처를 함께 확인하세요.

마음이 너그럽지 못하고 웅졸하며, 하는 것이 푼푼하지 못한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문헌의 뜻 · 전체 5개

20세기 고림보 용례 5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고림보

📖 출처 1931 동아일보 2월 1일 6면

용례 01

66 문헌 용례

예를 들면 짜보 쫘보 똥똥보 꾀보 쯔보 고림보 늘보 살보 바보 깍보 쟁보 곱보 양보 탁보 도보
이 밖에도 많이 있습니다.

⊖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3 동아일보 6월 2일 3면

용례 02

66 문헌 용례

어디 그 욕심장이 고림보 영감이 전어야 동네 사람 술 한 잔 맥었나.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3 별건곤 제64호 42면

용례 03

66 문헌 용례

썩썩한 사람을 썩보, 고리탐탐한 사람을 고림보, 인색한 사람을 게짐보, 썩 만든 사람을 썩보라 하고.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35 조선일보 8월 29일 조간 1면

용례 04

66 문헌 용례

꾸물꾸물하는 사람, 까불까불하는 사람, 희미중이, 덜렁쇠, 고림보, 욕심꾸레기, 밍살스러운 사람, 썰썰이, 시설쟁이, 더필이, 등은 다 좇치 못한 타입이지마는.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출처 1982 경향신문 10월 16일 6면

용례 05

66 문헌 용례

그렇다면 비슷한 뜻을 가진 고림보(꼼꼼하고 웅졸한 사람) 딸보(속이 좁고 너그럽지 못한 사람) 웅춘마니(소견이 좁고 오그라든 사람) 득보기(아주 못난 사람) 졸때기(변변찮은 사람) 바사기(덜된 사람) 등 좋은 말도 썼고 썩 마당에 왜 하필 「썩다」란 말인가.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몸이 약하여 늘 골골거리며 앓는 사람을 놀림조로 이르는 말. 문헌의 뜻 · 전체 1개

20세기 고림보 용례 1개

이 문헌 묶음의 표기 전체 보기
고림보

66 문헌 용례

핏기 질린 얼굴이 험뚱하고 어깨가 푹 움으려든 고림보여서, 입을 오므리고 골골하니 벽을 안고 누웠기가 아니면, 가탈진 구메 논밭에 주저앉아 곡식을 다를 뿐, 세상 물정을 멀리한 채 그건 완구히 은둔생활이었다.

이 용례에는 별도의 현대어 풀이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 세기 분류·표기·문헌명·현대어 풀이는 사전 자료 그대로 수록했습니다.
- 문헌의 연대와 세기 분류가 다른 경우에도 사전에 수록된 구분을 따릅니다.
- 용례 수는 이 사전에 수록된 예문의 수입니다.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와 구분해 읽어 주세요.

고림보 관련 낱말

고림장이

고림보의 참고문헌

사전 편찬 참고자료

별도의 참고문헌 목록은 수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자료 출처

이 자료는 ‘단어의 역사’의 낱말 페이지에 수록된 사전 자료를 바탕으로 구성했습니다. 원문과 현대어 풀이, 주석과 문헌명은 원자료의 표기를 따릅니다.

용례의 수는 이 자료에 수록된 예문의 수이며, 당시의 실제 사용 빈도를 뜻하지 않습니다.

history.wordrow.kr · [고림보의 뜻과 역사](#)

한자 한눈에 보기

뜻·설명·문헌·함께 읽을거리에 나온 한자를 중복 없이 모았습니다. 획순은 한 글자의 숫자로만 표시합니다.

例

뜻·음 법식 례

총 8획 · 부수 人

hanja.wordrow.kr/한자/例/

等

뜻·음 무리 등

총 12획 · 부수 竹

hanja.wordrow.kr/한자/等/